

## 『黃帝內經』의 噫에 대한 고찰

<sup>1</sup>한의학고전연구소 박사후연구원 · <sup>2</sup>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예과 강사 ·

<sup>3</sup>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교수

윤기령<sup>1,2</sup> · 백유상<sup>3</sup> · 장우창<sup>3</sup> · 정창현<sup>3\*</sup>

### A Study on the Meaning of ‘Yi(噫)’ in 『Huangdineijing』

Yun Ki-ryoung<sup>1,2</sup> · Baik You sang<sup>3</sup> · Jang Woo-chang<sup>3</sup> ·  
Jeong Chang-hyun<sup>3\*</sup>

<sup>1</sup>Post-doctoral Researcher at Institute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sup>2</sup>Instructor at Dept. of Pre-Korea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sup>3</sup>Professor at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Objectives** : To determine the meaning of ‘yi(噫)’ from verses containing the character in 『Huangdineijing』.

**Methods** : First, examples of the usage of ‘yi(噫)’ in Huangdineijing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llowed by examples from the other books of the time when 『Huangdineijing』 was written. Finally the term ‘ai’ which surfaced in a later period than Huangdineijing to refer to eructation was examined.

**Results & Conclusions** : Based on analysis of the usage of ‘yi(噫)’ in the 『Huangdineijing』, out of a total of 20 cases, 14 cases could be categorized as referring to eructation, 4 cases were difficult to categorize as eructation, and 2 cases were indeterminable. At the time of publication of 『Huangdineijing』, the character ‘yi(噫)’ was generally used to refer to eructation when used in a medical context, while in non-medical contexts it referred to sigh, or groan. The appearance of ‘ai(噯)’ is predicted to be during the Song period, but its appearance did not take away the meaning of eructation from ‘yi(噫)’ and both were used. Based on the change of meaning of ‘yi(噫)’, we can determine the approximate time when certain contents of the 『Huangdineijing』 were constructed. In the case of ‘心爲噫 [Heart makes ‘yi(噫)’, we can understand it as the pectoral qi leaking through the throat manifesting as a sigh in order to relieve stagnation of the excessiveness of the Heart. In cases of deficiency, when the Stomach function is weak, the body is likely to let out a sigh. The term meaning sighing which is ‘taixi(大息)’ was understood as symptomatic of problems of the Gallbladder as well as the Heart.

**Key words** : 噫(eructation/sigh), Heart makes ‘yi’[心爲噫], 噯(eructation), 宗氣(pectoral qi)

\* Corresponding author : Jeong Chang-hy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Tel : +82-2-961-0337, E-mail : jeongch@khu.ac.kr

Received(May 6, 2020), Revised(May 10, 2020), Accepted(May 10, 2020)

Copyright © The Society of Korean Medical Classics. All rights reserved.

Ⓢ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I. 서론

『素問宣明五氣』에 “五氣所病，心爲噫，肺爲咳，肝爲語，脾爲吞，腎爲欠，爲噫.”<sup>1)</sup>의 문장이 있다. 이 문장은 인체의 내부에서 외부로 반응이 표출되는 것을 五臟에 귀속시켜 설명하는 부분이다<sup>2)</sup>. 이렇게 생명 현상에 대하여 논한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임상에 응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중 ‘心爲噫’의 噫는 어떤 현상을 가리키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고 있다.

『內經』의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噫의 의미를 噎와 같은 의미로 보아 ‘트림’으로 풀이하고 있고, 현대 중국의 『內經』 연구자들은 대체로 이 설명을 따르고 있다<sup>3)</sup>.

噎를 字典에서 찾아보면 ‘한탄하거나 비통할 때 나는 소리, 감탄하거나 기릴 때 내는 소리, 말머리를 돌릴 때 내는 소리’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회’의 음을 가지고 트림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애’의 음을 가진다<sup>4)</sup>.

더욱이 『內經』이 저작된 시기까지의 다른 문헌들과 비교해본 결과 噎는 전자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內經』에서 噎의 용례가 모두 ‘트림’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른다.

현대 국내의 『內經』 번역서들은 용례 중 일부의 의미를 한숨쉬다로 해석하고 있지만<sup>5)</sup>, 책마다 정확

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內經』에서 쓰인 噎의 의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을 때 국내에서 『內經』 중에서 하나의 편을 주제로 한 논문 중 噎가 나오는 편에 대한 논문을 찾아본 결과 噎가 트림으로 번역되지 않은 경우를 찾을 수 있었다<sup>6)</sup>. 중국에서는 王官惠의 논문<sup>7)</sup>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內經』의 噎의 용례를 언급 하면서 여러 자전들의 噎에 대한 설명과 다른 문헌에서 볼 수 있는 噎의 용례를 통해 주석가들의 일반적인 인식처럼 일괄적으로 噎를 트림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內經』에서의 용례를 정리하였을 뿐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없어서 噎를 트림의 의미로만 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內經』에서 噎가 쓰이는 문장에서 噎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內經』에서 噎의 용례를 찾아서 주석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문맥에 따라 噎의 기전을 분석하여 트림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경우와 보기 어려운 경우,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를 구별하였다. 다음으로 『內經』이 지어진 시대의 전후의 의서 및 기타 서적에서 噎의 용례를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內經』보다 후대에 트림의 의미로서 출현한 噎가 사용된 예 등을 검토하고, 기존의 噎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하여 『內經』에서 噎가 사용된 각 편의 문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噎의 의미를 기전을 검토하여

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2.  
 2) 脾爲吞에 대하여 張志聰은 脾氣의 病으로 四臟을 灌漑하지 못하여 津液이 脾竅인 口로 넘치는 것으로 보았으며, 丹波元簡은 이를 근거로 呑酸呑吐이라고 하여 신물이 올라오는 것이라고 보았다.(日本·丹波元簡 等編. 聿修堂醫書選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147.)  
 3) 참고한 현대 중국의 『內經』 연구서들은 다음과 같다. 王琦 외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張登本 主編. 白話通解黃帝內經.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4) 李家源·安炳周 監修,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 大漢韓辭典. 서울. 教學社. 1998. p.610.  
 5) 박찬국.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問譯. 서울. 집문당. 2005. p.464, 857, 1040.

박찬국.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서울. 집문당. 2009. p.377, 398.  
 김달호, 이종형 共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素問(上). 서울. 의성당. 2001. p.539.  
 김달호, 이종형 共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素問(下). 서울. 의성당. 2001. p.41, 63, 305.  
 김달호 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靈樞(全). 서울. 의성당. 2002. p.1364.  
 6) 채영진. 素問至真要大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 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63. 太陽司天의 증상 중 하나인 善噎를 ‘탄식을 자주 하고’로 번역하였다.  
 7) 王官惠. 『內經』“噎”字辨析. 湖北中醫雜誌. 1985. 3. pp.40-41.

확정하는 것이므로 관련된 이론 연구와 함께 임상에서 활용하여 噫가 나타나는 증상의 치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 II. 본론

### 1. 『黃帝內經』의 噫의 용례

噫는 『內經』에서 『素問』의 10편, 『靈樞』의 4편에 걸쳐 총 20회 나온다. 먼저 각각의 용례에서 噫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噫를 트림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분석 결과 噫를 트림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素問』의 6편, 『靈樞』의 3편에 걸쳐 총 14회 나온다. 『素問』과 『靈樞』의 편 순서로 하나씩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素問陰陽別論』의 문장이다.

二陽一陰이 병을 일으킴은 주로 잘 놀라고 등이 아프고 트림과 하품을 자주하게 되니 이름하여 風厥이라 한다.<sup>8)</sup>

三陰, 三陽과 관련된 經脈, 臟腑의 병증을 논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二陽一陰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뒤에 二陰一陽이나 三陽三陰을 합쳐서 병증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開闔樞의 기능이 일치하는 것을 합쳐서 논한 것이다. 張介賓은 二陽은 陽明으로서 胃와 大腸으로 보고, 一陰은 厥陰으로 肝과 心 주로 보았다. 噫는 噯氣이며 그것을 주하는 것은 心이라고 하였는데, 『靈樞邪客』의 내용을 근거로 心主를 心과 연결하였고, 『素問脈解』의 내용을 인용하여 心과 噫를 연결하여 설명하였다<sup>9)</sup>. 馬蒔는 噫에 대하여 氣轉, 飽出息이라고 풀이하였다<sup>10)</sup>. 王冰은 二陽

은 衍文으로 보고 一陰을 心主와 肝으로 보고 心主의 經脈이 心에 속하고, 心의 氣가 噫에 있다고 하였고<sup>11)</sup>, 吳崑은 噫를 手厥陰心主의 증상으로서 단지 『素問宣明五氣』의 ‘心爲噫’를 근거로 설명하였다<sup>12)</sup>. 章楠은 手經을 제외하고 足經만을 연결하여 足陽明胃의 문제로 中脘에 濁氣가 壅滯하여 噫가 일어난다고 하여<sup>13)</sup> 의가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噫에 대하여 트림의 의미로 보았다.

『素問診要經終論』에서 “太陰이 끊어진 사람은 배가 부풀면서 막혀 숨을 쉴 수 없어 자주 트림하고 자주 구역질을 하니, 구역질을 하면 기가 거스르고, 기가 거스르면 얼굴이 붉어지며, 기가 거스르지 않으면 상하가 통하지 않게 되니, 통하지 않으면 얼굴이 검으며 피모가 타서 죽는다.”<sup>14)</sup>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靈樞終始』의 내용과 거의 같다<sup>15)</sup>. 이 문장은 十二經脈의 氣가 끊어졌을 때의 증상을 논하고 있는 내용 중 太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張介賓은 足太陰脾와 手太陰肺와 관련된 증상으로 脘閉하여 氣의 升降의 문제가 일어나고, 不得息하여 氣道가 막힌다고 하였고<sup>16)</sup>, 王冰은 足太陰脾經의 是動病 중 ‘善噫’가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설명하였는데<sup>17)</sup>, 여기서의 噫는 트림의 의미로 볼 수 있다.

民衛生出版社. 1998. p.67.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1. “二陽一陰發病, 主驚駭, 背痛, 善噫, 善欠, 名曰風厥.”  
9)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29. “二陽, 胃與大腸也. 一陰, 肝與心主也. ……噫, 噯氣也, 其主在心. 然邪客篇曰: 諸邪之在于心者, 皆在于心之包絡也. 又脈解篇曰: 所謂上走心爲噫者, 陰盛而上走于陽明, 陽明絡屬心, 故曰上走心爲噫也.”  
10) 明·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

11) 張登本 孫理軍 主編. 王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55. “心主之脈, 起于胸中, 出屬心, 經云: 心病背肩胛間痛. 又在氣爲噫, 故背痛, 善噫.”  
12) 明 吳崑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39. “五氣所病, 心爲噫, 故善噫.”  
13) 清·章楠虛谷編注, 方春陽 孫芝齋 點校.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222. “二陽者, 陽明胃, 一陰者, 厥陰肝……中脘濁壅, 故善噫也.”  
1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55. “太陰終者, 腹脹閉, 不得息, 善噫善嘔, 嘔則逆, 逆則面赤, 不逆則上下不通, 不通則面黑, 皮毛焦而終矣.”  
1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73. “太陰終者, 腹脹閉, 不得息, 氣噫, 善嘔, 嘔則逆, 逆則面赤, 不逆則上下不通, 上下不通則面黑, 皮毛焦而終矣.”  
16)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346. “脘閉則升降難, 不得息則氣道滯, 故爲噫爲嘔.”  
17) 張登本 孫理軍 主編. 王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91. “《靈樞經》曰: ‘足太陰之脈動, 則病食則嘔, 腹脹善噫也.’”

『素問三部九候論』에서 “만약 七診의 병이 있고 그 맥의 징후 또한 패하여 진장맥이 드러나는 자는 죽으니, 반드시 딸꾹질과 트림을 한다.”<sup>18)</sup>라고 하였다. 여기서 噦과 噫는 死證으로 제시된 것이다. 王冰은 噦과 噫가 일어나는 기전을 각각 胃精內竭과 神不守心이라고 하여 噫와 心의 관계에서 神의 문제를 언급하였는데<sup>19)</sup>, 이로 보아 噫를 트림의 의미로 보았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반면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噦, 噫 모두 土氣가 허하여 胃가 逆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噫를 트림으로 해석하였다. 張介賓은 噫를 트림으로 본 것은 다름이 없으나 噫가 心에서 나오는 이유를 陰邪가 勝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sup>20)</sup>, 死生을 판단하는 상황에서 噫가 나오는 것을 眞陽이 탈하는 상황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素問脈解』에서 “太陰에 脹을 앓는다고 말하는 것은 太陰은 子이고 11월에는 만물이 기를 속에 갈무리하므로 脹을 앓는다고 말한 것이다. 위로 心으로 달려가 트림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음이 성하여 위로 陽明으로 달려가면 陽明의 락이 心에 속하므로 위로 심으로 달려가 트림을 일으킨다고 말한 것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太陰脾와 陽明胃를 연결하였고, 陽明의 락이 심에 속하므로 위로 心으로 가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陽明의 락이 心에 속한다는 것은 『靈樞經脈』의 足太陰脾經에서 “갈라진 것은 다시 胃로부터 별도로 膈으로 올라가서 心中으로 흐릅니다.”<sup>22)</sup>라고 한 것과 『靈樞經別』의 “足陽明에서 갈라진 것은 위로 넓적다리에 이르

러 뱃속으로 들어가서 胃에 속하고 비에 흠어졌다가 위로 심과 통합니다.”<sup>23)</sup>에 근거를 둔 것이다. 脾胃와의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여기서 일어나는 噫는 트림으로 볼 수 있다.

運氣七篇 중 하나인 『素問至眞要大論』에서도 噫의 증상이 여러 번 나온다. 厥陰이 在泉하는 해에 “음식이 내려가지 않고 횡격막과 목구멍이 막혀서 먹으면 토하며 배가 부르면서 트림을 하며 방귀가 나오면 시원하면서 배가 끼지는 듯하며 몸 전체가 무겁다.”<sup>24)</sup>라고 하였다. 뒤의 증상은 足太陰脾經의 是動病에 나오는 증상과 유사한데, 厥陰이 在泉하여 風淫이 勝하여 木克土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으므로 噫를 트림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같은 편에서 少陰之復과 太陽之復에는 ‘딸꾹질하며 트림을 한다’<sup>25)</sup>라고 하였다. 噦과 噫의 증상이 함께 제시되었는데, 앞에서 『素問三部九候論』의 예와 같이 噫를 트림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素問示從容論』에서도 “머리가 아프며 굳이 뒤틀리며 뼈가 무거우며 怯然하게 少氣하고 딸꾹질과 트림을 하며 배가 그득하고 때때로 놀라면서 잘 자지 못한다.”<sup>26)</sup>라고 하였는데, 噦과 관련하여 噫는 트림으로 해석 가능하다.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2. “若有七診之病, 其脈候亦敗者死矣, 必發噦噫.”

19) 張登本 孫理軍 主編. 王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19. “胃精內竭, 神不守心, 故死之時, 發斯噦噫. 《宣明五氣篇》曰: ‘心爲噫, 胃爲噦也.’”

20)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12. “然其死也, 必發噦噫. 蓋噦出于胃, 土氣敗也. 噫出于心, 陰邪勝也.”

21)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84. “太陰所謂病脹者, 太陰子也, 十一月, 萬物氣皆藏於中, 故曰病脹. 所謂上走心爲噫者, 陰盛而上走於陽明, 陽明絡屬心, 故曰上走心爲噫也.”

2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7. “其支者, 復從胃, 別上膈, 注心中.”

2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7. “足陽明之正, 上至脾, 入於腹裏屬胃, 散之脾, 上通於心.”

2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5. “歲厥陰在泉, 風淫所勝, 則地氣不明, 平野味, 草乃早秀. 民病洒洒振寒, 善伸數欠, 心痛支滿, 兩脇裏急, 飲食不下, 膈咽不通, 食則嘔, 腹脹善噫, 得後如氣, 則快然如衰, 身體皆重.”

2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8. “少陰之復, 慄熱內作, 煩燥飢嘔, 少腹絞痛, 火見燔燔, 陰燥分注時止, 氣動於左, 上行於右, 咳, 皮膚痛, 暴痞, 心痛, 鬱冒不知人, 乃洒淅惡寒, 振慄, 謔妄, 寒已而熱, 渴而欲飲, 少氣骨疼, 隔腸不便, 外爲浮腫, 噦噫, 赤氣後化, 流水不冰, 熱氣大行, 介蟲不復. 病辨疹瘡瘍, 癰疽瘰癧, 甚則入肺, 咳而鼻淵. …… 太陽之復, 厥氣上行, 水凝雨冰, 羽蟲乃死, 心胃生寒, 胸膈不利, 心痛吞滿, 頭痛善悲, 時眩仆, 食減, 腰膝痠痛, 屈伸不便, 地裂冰堅, 陽光不治, 少腹控睪, 引腰脊, 上衝心, 唾出清水, 及爲噦噫, 甚則入心, 善忘善悲.”

2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11. “頭痛, 筋攣, 骨重, 怯然少氣, 噦, 噫, 腹滿, 時驚不嗜臥.”

다음으로 『靈樞經脈』에서 脾足太陰之脈의 是動病에 “舌本이 뻗뻗하며 음식을 먹으면 嘔하고 胃脘이 아프며 배가 부르고 트림을 하고 대변을 보거나 방귀가 나오면 시원하면서 배가 꺼지는 듯하며 몸이 모두 무겁다.”<sup>27)</sup>라고 하였고, 『靈樞口問』에서는 噫, 즉 트림에 대하여 “한기가 위에 들어와 썩어지기가 아래에서 위로 흩어져 다시 위에서 나오므로 트림을 한다. 즉태음양명을 보한다.”<sup>28)</sup>라고 하였다. 두 경우 脾胃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두 트림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內經』에서 陽明胃와 太陰脾의 문제로 인하거나 胃의 증상인 噯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噫는 트림으로 볼 수 있다.

## 2) 噯를 트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앞에서 본 것처럼 『內經』에 나오는 噫는 여러 편에서 일반적으로 트림의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噯를 트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분석 결과 『素問』의 3편, 『靈樞』의 1편에 걸쳐 총 4회 나온다.

먼저 『素問宣明五氣』의 문장이다.

五氣가 병드는 것은, 心은 한숨을 쉬고, 肺는 기침을 하고, 肝은 말을 주저리주저리 하고, 脾는 신물이 올라오고, 腎은 하품을 하거나 재채기를 한다. 胃는 氣逆을 하거나 딸꾹질을 하고 두려워하고, 大腸, 小腸은 설사를 하고, 下焦는 넘쳐서 부종이 되고, 膀胱은 수조롭지 못하면 癰이 되고 묽지 못하면 유뇨가 되고, 膽은 성내게 하니, 이를 일러 五病이라 합니다.<sup>29)</sup>

이 내용은 『靈樞九鍼論』의 내용<sup>30)</sup>과 크게 다르

지 않다. 張介賓은 『內經』에서 噯氣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噯가 꼭 噯氣라고 하여 다른 부분에서 噯를 풀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트림의 의미로 보았다. 전체적으로 『內經』에서 心, 脾, 胃 세 臟에 이 噯, 즉 트림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火土의 鬱로 氣가 퍼지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였다<sup>31)</sup>. 王冰은 ‘心爲噯’에 대하여 “불이 불타오름에 연기가 불꽃을 따라 나오는 것을 형상한 것이니, 心은 더러운 것을 받지 않으므로 噯가 나온다.”<sup>32)</sup>라고 하였다. 즉 王冰은 噯를 트림으로 보지 않고 心의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다.

‘心爲噯’의 噯는 ‘胃爲氣逆爲噯爲恐’로 보았을 때 胃와 관계있는 또 다른 증상인 트림으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여기서 ‘肺爲欬’의 欬가 즉 기침이 기도에 막혀 있는 것을 밖으로 빼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볼 때 ‘心爲噯’는 정신적으로 불안함이나 우울함, 답답함 등이 있어서 기가 鬱滯되었을 때 한숨을 크게 쉬면서 상초의 心에 기가 막혔던 것을 풀리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素問刺禁論』과 『素問四時刺逆從論』에는 五臟 등을 자침하여 적중하였을 때 각각 나타나는 죽음의 징후를 서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침을 놓아 心에 적중하면 하루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한숨을 쉬는 것이고, 침을 놓아 肝에 적중하면 닷새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말을 하는 것이고, 침을 놓아 腎에 적중하면 옛새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재채기하는 것이고, 침을 놓아 肺에 적중하면 사흘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기침을 하는 것이고, 침을 놓아 脾에 적중하면 열흘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0. “舌本強, 食則嘔, 胃脘痛, 腹脹, 善噯, 得後與氣, 則快然如衰, 身體皆重.”  
2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8. “寒氣客於胃, 厥逆從下上散, 復出於胃, 故爲噯. 補足太陰陽明.”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92. “五氣所病, 心爲噯, 肺爲咳, 肝爲語, 脾爲吞, 腎爲欠, 爲噯. 胃爲氣逆爲噯爲恐, 大腸小腸爲泄, 下焦溢爲水, 膀胱不利爲癃, 不約爲遺溺, 膽爲怒, 是爲五病.”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32. “五藏氣, 心主噯, 肺主咳, 肝主語, 脾主吞, 腎主欠. 六府氣, 膽爲怒, 胃爲氣逆噯, 大腸小腸爲泄, 膀胱不約爲遺溺, 下焦溢爲水.”  
31)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261. “噯, 噯氣也. 遍考本經, 絕無噯氣一證, 而惟言噯者, 蓋卽此也. ……是心脾胃三臟皆有是證, 蓋由火土之鬱, 而氣有不得舒伸, 故爲此證.”  
32) 張登本 孫理軍 主編. 王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29. “象火炎上, 煙隨焰出, 心不受穢, 故噯出之.”

呑하는 것이고, 침을 놓아 膽에 적중하면 하루 반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구역질하는 것입니다.<sup>33)</sup>

오장에 침을 놓아 心에 적중하면 하루 만에 죽는 데 그 변동은 한숨을 쉬는 것이고, 肝에 적중하면 다섯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말을 하는 것이고, 肺에 적중하면 사흘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기침을 하는 것이고, 腎에 적중하면 열새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 재채기와 하품을 하는 것이고, 脾에 적중하면 열흘 만에 죽으니 그 변동은呑하는 것입니다. 침을 놓아 오장을 상하면 반드시 죽는데 오장의 기가 변동하면 곧 그 藏의 變候에 의거하여 죽을 것을 압니다.<sup>34)</sup>

心의 증상으로 “一日死, 其動爲噫.”라고 하였다. 五臟의 증상은 腎을 제외하고 『素問·宣明五氣』의 五氣所病의 증상과 각각 일치한다. 단 여기서의 噫는 앞서 『素問·宣明五氣』처럼 기가 鬱滯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침으로 각 장에 적중하였을 때 장에 남아있던 기를 요동시켜 새어나오게 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內經』에서 心 자체의 문제로 噫가 일어나는 경우는 噫를 트림의 의미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한숨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噫를 트림인지 아닌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원문 분석 결과 噫의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素問』의 2편에 총 2회 나온다<sup>35)</sup>.

먼저 『素問·痺論』의 글이다.

心痺는 맥이 통하지 아니하므로 가슴이 답답해지면 심하부가 두근거리며 갑자기 기가 오르면서 숨이 가쁘며 목이 마르면서 (트림을 하다가, 한숨을 쉬다가) 厥氣가 위로 올라오면 두려워한다.”<sup>36)</sup>

여기서의 噫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전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心爲噫’로 설명하는 주석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黃元御는 다른 편의 噫를 설명할 때와 마찬가지로 濁氣不降<sup>37)</sup>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고, 章楠 또한 脫滯<sup>38)</sup> 등으로 설명하였다. 맥이 통하지 않아 가슴이 답답하고, 심하부가 두근거리면서 기가 올라오는 것인데, 心 자체의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심하부와 胃가 연결해 있어 胃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素問·至眞要大論』에서도 太陽이 司天하는 해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가슴이 크게 울렁거리며 가슴과 옆구리와 위완이 불안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노래지며 자주 (트림을 하며, 한숨을 쉬며) 목이 마르고 심하면 안색이 그을린 듯하며 갈증으로 물을 먹으려고 하니, 병이 心에서 생긴 것이다<sup>39)</sup>.

太陽이 司天하여 寒淫이 勝하는 것인데, 水克火가 일어나서 병의 근본은 心에 있다. 하지만 가슴이 울렁거리면서 胃脘이 불안한 것은 噫의 원인이 心인지 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心和 胃는 해부학적으로 서로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臟腑 모두 관련하여 噫가 일어나는

3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90. “刺中心, 一日死, 其動爲噫. 刺中肝, 五日死, 其動爲語. 刺中腎, 六日死, 其動爲噦. 刺中肺, 三日死, 其動爲咳. 刺中脾, 十日死, 其動爲吞. 刺中膽, 一日半死, 其動爲嘔.”

3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29. “刺五藏中心一日死, 其動爲噫. 中肝五日死, 其動爲語. 中肺三日死, 其動爲咳. 中腎六日死, 其動爲噦. 中脾十日死, 其動爲吞. 刺傷人五臟必死, 其動則依其藏之所變候, 知其死也.”

35) 『素問·至眞要大論』에서 噫는 4회 나오는데, 3회는 트림으로 볼 수 있고, 1회는 트림인지 아닌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두 경우 모두 편이 계산되었다.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62. “心痺者, 脈不通, 煩則心下鼓, 暴上氣而喘, 噓乾善噫, 厥氣上則恐.”

37) 孫治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84. “濁氣不降則善噫.”

38) 清·章楠虛谷編注, 方春陽 孫之齋 點校.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p.277. “脫滯則善噫.”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6. “太陽司天, 寒淫所勝, 則寒氣反至, 水且冰, 血變于中, 發爲癰瘍. 民病厥心痛, 嘔血, 血泄, 衄衄, 善悲, 時眩仆. 運火炎烈, 雨暴乃雹. 胸腹滿, 手熱肘攣, 掖腫, 心澹澹大動, 胸脇胃脘不安, 面赤目黃, 善噫噓乾, 甚則色始, 渴而欲飲, 病本於心.”

경우는 의미를 트림인지 아닌지 확정하기 어렵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 연구가 후속 연구로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2. 『內經』저작 당시의 의서 및 기타 서적에 나오는 噫의 용례

원문 분석 결과 『內經』의 噫는 트림의 의미로 대다수 활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한숨을 쉬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용례도 일부 존재하였다.

추가적으로 噫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內經』저작 당시의 다른 서적에서 나오는 噫의 용례를 통해 근거를 찾아보았다.

### 1) 『內經』저작 전후의 의서에 나오는 噫의 용례

『內經』저작 전후의 의서인 馬王堆帛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足泰陰之脈의 是動病에서 ‘善噫’가 나오고<sup>40)</sup>, 『足臂十一脈灸經』에서는 噫의 通假字로 意가 쓰여서 足泰陰脈의 병으로 ‘善意’<sup>41)</sup>가 나오는데, 모두 트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足臂十一脈灸經』에서 臂泰陰脈의 병으로 ‘心煩而意’가 나오는데<sup>42)</sup>, 앞에서 『素問·痺論』에서 가슴이 답답한 경우와 같이 噫의 의미를 트림인지 한숨인지 확인할 수 없다.

『內經』저작 전후의 다른 의서 중 『難經·十六難』에서 脾의 外證으로 ‘善噫’가 나타나는데, 噫는 트림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43)</sup>.

『傷寒論』에서 噫는 『宋本傷寒論』을 기준으로 157조의 生薑瀉心湯 조문<sup>44)</sup>과 161조의 旋覆花代赭石湯 조문<sup>45)</sup>에 나온다. 여기서 나오는 ‘乾噫食臭’와 ‘噫氣

不除者’의 ‘噫’ 모두 『傷寒論』의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트림으로 풀이하고 있다. 단 清代 柯琴은 『傷寒來蘇集』에서 157조의 조문을 주석하는 데 있어서 원문 자체를 ‘乾噫食臭’에서 ‘乾嘔食臭’로 바꾸었는데<sup>46)</sup>,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邪氣가 胃의 上口에 있어서 乾嘔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161조의 조문을 주석하면서 ‘噫氣’는 心氣가 크게 허하여 心氣가 하강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衞氣가 出亡하는 상에 비유하여 噫를 傷痛聲으로 설명하였다<sup>47)</sup>. 『康熙字典』에서 『玉篇』을 인용하여 噫를 ‘痛傷之聲也’라고 하였는데<sup>48)</sup>, 柯琴은 噫를 트림보다는 한숨, 탄식의 의미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 2) 『內經』저작 전후의 기타 서적에 나오는 噫의 용례

『內經』저작 전후의 기타 서적에서 噫를 찾아본 결과 『詩經·周頌』의 ‘噫嘻’의 시에서 ‘噫嘻成王’<sup>49)</sup>, 『書經·金縢』에서 “噫, 公命, 我勿敢言.”<sup>50)</sup>, 『論語·子路』에서 “噫, 斗筭之人, 何足算也.”<sup>51)</sup> 등으로 쓰여 噫가 탄식하는 소리를 의미하였다. 마찬가지로 『莊子·齊物論』에서 “夫大塊噫氣, 其名爲風.”<sup>52)</sup>의 噫는 기를 내뿜는다는 한숨의 의미를 가지고, 『莊子』의 다른 편<sup>53)</sup> 등에서는 탄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史記』에서 噫의 용례는 “噫嘻, 亦太甚矣先生之言也.”<sup>54)</sup> 등

者, 旋覆代赭湯主之.”

40) 馬繼興 著.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47.

41) 馬繼興 著.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198.

42) 馬繼興 著.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09.

43) 윤창열,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p.403.

44)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59. “傷寒汗出解之後, 胃中不和, 心下痞硬, 乾噫食臭,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利者, 生薑瀉心湯主之.”

45)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p.359. “傷寒發汗, 若吐, 若下, 解後, 心下痞硬, 噫氣不除

46) 清·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52. “陽邪居胃之上口, 故心下痞硬, 乾嘔而食臭.”

47) 清·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56. “既發汗復下之, 心氣太虛, 表寒乘虛而結于心下. 心氣不得降而上出于聲, 君主出亡之象也. 噫者傷痛聲. 不言聲而曰氣者, 氣隨聲而見于外也.”

48) 史廣江 責任編輯. 康熙字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6. p.210.

49) 松亭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詩傳(全). 서울. 明文堂. 1991. p.495. (기원전 11세기~기원전 6세기)

50) 書傳集註. 서울. 太山文化社. 1984. p.517.

51) 松亭 金赫濟 校閱. 懸吐釋字具解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2000. p.276. (기원전 10세기)

52) 안동립 역주. 莊子. 서울. 현암사. 2005. p.48. (전국시대)

53) 안동립 역주. 莊子. 서울. 현암사. 2005. p.214, 504, 633, 664.

으로 볼 때 탄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內經』저작 이전의 의서가 아닌 기타 서적에서는 噫의 의미를 『內經』에서 다수 보이는 트림의 의미와 다르게 한숨과 탄식의 의미로 본 것이 많다.

『內經』저작 이후 의서가 아닌 기타 서적에서는 『禮記』에서 『禮記·檀弓』의 “噫, 毋.”<sup>55)</sup>, “爾以人之母嘗巧, 則豈不得以. 其母以嘗巧者乎, 則病者乎, 噫.”<sup>56)</sup>에서 쓰인 噫는 탄식을 의미하고, 『後漢書·梁鴻傳』의 ‘五噫之歌’<sup>57)</sup>등의 용례에서 噫는 탄식하는 소리를 의미한다.

이와 다르게 『說文解字』에서는 噫를 ‘飽出息也’<sup>58)</sup>라고 하여 噫를 트림의 의미로 보았고, 『禮記·內則』에서 ‘不敢噦噫嚔咳欠伸跛倚聯視’<sup>59)</sup>에서도 噫가 나오는데 이 문장은 『小學·明倫』에도 인용되었고<sup>60)</sup>, 이 噫를 보통 트림으로 해석한다.

### 3. 트림을 의미하는 噫의 출현

이후의 의서에서는 트림에 대하여 噫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 1) 字典에서 나타나는 噫의 의미

‘噫’는 『說文解字』에 나오지 않는 글자이다. 『康熙字典』은 『說文解字』와 그 이후로 간행된 자서 『字彙』(1615), 『正字通』(1670) 등과 운서 『唐韻』, 『廣韻』, 『集韻』, 『韻會』, 『洪武正韻』 등의 내용을 인용하고 종합하여 1716년에 간행한 字典이다<sup>61)</sup>.

『康熙字典』의 噫에 대한 설명은 宋代의 字典인 『集韻』의 내용으로 “於蓋切, ㄸ音藹.”이라고 나오고,

『玉篇』의 내용으로 ‘烏蓋切, 暖氣也’의 내용만 나올 뿐 宋代 이전의 『唐韻』 등 다른 字典의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sup>62)</sup>. 『集韻』(1039)은 『廣韻』(1008)을 발전시킨 것인데, 『四庫全書』<sup>63)</sup>의 검색결과 噫는 『廣韻』에 나타나지 않고, 『集韻』에 나타났으나 ‘氣也’라는 설명만 확인할 수 있었다. 『玉篇』은 543년 南朝 梁나라의 顧野王이 만들어 唐代 760년에 孫強이增收하였고, 宋代 1013년 陳彭年 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重修하였는데, 重修한 『玉篇』에서 噫를 찾을 수 있으나<sup>64)</sup>, 실제로 ‘烏蓋切, 暖氣也’라는 설명이 있었다. 『康熙字典』에서 『玉篇』을 인용하면서 ‘暖氣也’라고 하였는데, 단순히 傳寫의 오류가 아니라면 트림은 胃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단지 목에서 나오는 기운보다 따뜻하다고 보았거나, 暖氣의 설명에서 暖과 모양이 비슷한 噫의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본 것 같다.

결과적으로 噫는 비교적 후대에 만들어진 글자이므로 사전에서 의미 설명이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의서에서 나타나는 噫의 용례

『四庫全書』의 검색결과 噫 字를 사용한 가장 이른 시기의 의서로 宋代 陳無擇의 『三因極一病證方論』이 확인되는데, 字典과 의서의 예로 보아 ‘噫’ 字의 등장 시기는 宋代로 추정된다.

『三因極一病證方論』에서는 脾中寒의 증상에서 ‘噫噫不通’을 언급하였다<sup>65)</sup>. 噫와 噫를 붙여서 사용하였는데, 脾中寒의 증상이므로 여기서 噫, 噫를 모두 트림의 의미로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茯苓湯의 主治에서 ‘停留胃管, 噫聞血腥,’이 있으며<sup>66)</sup>, 麴朮丸의 主치에서 ‘噫宿腐氣者’를 언급

54) 漢 司馬遷 撰. 史記 第八冊 傳(二). 北京. 中華書局. 1982. p.2463.(기원전 90년경)

55) 禮記. 서울. 保景文化社. 1991. p.119.

56) 禮記. 서울. 保景文化社. 1991. p.127.

57)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 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p.1043. (432년~445년)

58) 許惟賢 整理. 說文解字注(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9. p.97. (121년)

59) 禮記. 서울. 保景文化社. 1991. p.349. (80년경)

60) 松亭 金赫濟 校閱. 原本 小學集註(上). 서울. 明文堂 1985. p.7.

61)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서울. 역락. 2012. p.204.

62) 史廣江 責任編輯. 康熙字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6. p.210.

63)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

64) 顧野王의 원본과 孫強이增收한 판본 모두 현재 남아있지 않다.

65)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43. “脾中寒之狀, 心腹脹, 四肢掣急, 噫噫不通, 臍氣不傳, 或秘或泄.”

66)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6. “治憂怒兼并, 氣攻血溢, 停留胃管, 噫聞血腥, 嘔吐食飲; 及妊娠中脘痞冷, 冷血侵脾, 惡聞食氣, 病名惡



하였다<sup>67)</sup>. 여기서 噫의 의미는 앞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모두 트림을 의미한다. 같은 책에서 ‘噫宿腐氣’<sup>68)</sup>, “大率胃實即噫, 胃虛則噦.”<sup>69)</sup> 등에서처럼 噫가 트림의 의미로 사용되는 예도 많은 것으로 보아 噫와 噦를 혼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의 明清代의 많은 의서에서는 噫의 용례를 다수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噦를 직접적으로 병명으로 다루는 의서도 있었지만 噫도 역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內經』과 『傷寒論』의 원문에 사용된 噦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噦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단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噦와의 연관성을 언급하는 책도 있었다. 『東醫寶鑑·言語』를 예로 들면 噦를 표제어로 쓰고 “與噦氣同, 吐出飽氣也.”<sup>70)</sup>라고 하였다. 이처럼 噦가 쓰인 이후에도 噥와 噥의 의미가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噦가 생겨난 이후에도 噥는 『內經』을 인용한 예를 제외한다면 한숨이나, 탄식 등의 뜻으로는 의서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噥와 噦의 의미를 구분해서 보는 의견도 존재하였는데, 高世楨은 噥를 ‘微噦’라고 하여 噥와 噦의 정도차를 구분하여 噦보다는 기운이 덜 나온다고 하였다<sup>71)</sup>. 『醫宗金鑑』에서는 “噦氣는 포식하는 것을 너무 급히 하여 그 때에 噦가 나오니 변한 음식의 기이다. 噥氣는 과식과 음식에 상함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서 噥가 나오니 음식의 썩은 기운이다.”<sup>72)</sup>라고 하여 噦氣는 먹는 순간에 바로 나오는 것이고,

噥氣는 먹은 이후 시간이 지나서 나오는 것으로 분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吃逆, 噥氣者는 지금의 소위 噦氣이다. 포식하는 것을 너무 급히 하여 그 때에 噦가 나오고 음식 냄새가 나지 않으므로 이름하여 吃逆이라고 한다. 과식과 음식에 상함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나서 噦가 나오고 음식의 썩은 기운이 있으므로 이름하여 噥氣라고 한다.”<sup>73)</sup>라고 하여 그 당시의 噥氣에 해당하는 것이 吃逆과 噥氣라고 하였는데, 같은 책 안에서 두 가지의 다른 내용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두 경우 모두 噥의 의미를 트림으로 본 것은 다르지 않다.

### Ⅲ. 고찰

본 연구의 목표는 『黃帝內經』의 噥의 용례를 분석하여 噥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정리하면 총 20회의 용례 중 噥를 트림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대다수에 속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素問·宣明五氣』의 ‘心爲噥’, 『素問·刺禁論』 등의 ‘其動爲噥’처럼 트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素問·痺論』, 『素問·至眞要大論』처럼 의미를 트림으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역시 존재하였다.

『內經』저작 당시의 다른 서적에서 噥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의서에서 噥는 『內經』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트림의 의미로 쓰였으며 의서 이외의 기타 서적에서는 일부 트림의 의미로 쓰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숨, 탄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추가로 트림을 나타내는 噦를 宋代 이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噥와 噥의 의미가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한 결과 추가적으로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噥의 용례를 통해 살펴본 『內經』과 기타 서적과의 관계

阻.”  
67)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8. “治中脘有宿食留飲, 酸蕪心痛, 口吐清水, 噦宿腐氣者.”  
68)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8.  
69)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p.137.  
70) 허준 지음,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6, p.177.  
71) 清 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p.172.  
72) 清·吳謙 等編,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530. “噦氣者, 因飽食太急, 比時作噦, 轉食氣也. 噥氣者, 因過食傷食, 越時作噥, 食臭氣也.”

73) 清·吳謙 等編,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p.120. “吃逆·噥氣者, 卽今之所謂噦氣也, 因飽食太急, 比時作噦, 而不食臭, 故名曰吃逆也. 因過食傷食, 過時作噦有食臭氣, 故名曰噥氣也.”

『內經』은 저자를 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여러 시기를 거쳐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內經』에서 쓰이는 어떤 용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1차적으로는 다른 편에서 쓰인 용례를 바탕으로 의미를 파악해볼 수 있지만 같은 『內經』 안에서 하나의 용어가 여러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앞에서 『內經』과 『內經』저자 전후의 의서 및 기타 서적에서 噫의 용례를 찾아보았다. 의서는 대체적으로 트림의 의미로 쓰였고, 기타 서적 중 『詩經』, 『書經』, 『論語』, 『莊子』, 『史記』 등에서는 噫가 한숨 및 탄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說文解字』에서는 噫를 트림의 의미로만 제시하고 있다. 『說文解字』는 『詩經』, 『書經』 등의 경전뿐만 아니라 『內經』의 영향 또한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sup>74)</sup>, 병증, 증상과 관련된 글자는 『內經』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噫의 예를 통해 본다면 噫의 풀이는 다른 경전보다는 『內經』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각 책의 成書 시기는 내용이 만들어진 시기와 구분해서 보아야 하는데, 위 내용에 근거한다면 『內經』의 내용이 만들어진 시기는 噫의 의미가 한숨, 탄식으로 주로 쓰이다가 트림의 의미가 나타나는 과도기라고 추정된다. 『禮記』 또한 같은 책에서 탄식과 트림의 의미가 모두 보이므로 마찬가지로 이에 해당한다.

## 2. 噫를 통해 살펴본 心과 胃의 관계

『內經』에 나오는 噫의 정확한 기전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心과 胃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內經』의 일부 문장에서 噫를 한숨, 탄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心의 문제로 인해 胃의 소화기계통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즉 心의 문제로 인해 水穀을 정상적으로 소화시키는 작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의가들의 전통적인 설명은 五行相生

74) 蘭鳳利. 論《黃帝內經》對《說文解字》的影響. 中華醫史雜誌. 2006. 10(4). p.205.

관계로서 心은 火, 胃는 土에 속하기 때문에 火不生土라고 설명하고 있다.

胃에 관련된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 胃의 降濁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생길 수 있는 것은 嘔吐, 吐酸, 呃逆, 噯氣, 噎膈, 反胃 등이다. 心의 정신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러한 胃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중 噎膈을 예로 들고자 한다. 噎膈은 음식을 넘기지 못하는 증상이다. 트림과의 차이점은 음식물이 胃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라면, 噎膈은 음식이 들어가는 것조차 어렵다. 『東醫壽世保元』은 체질에 따른 性情의 문제로 병리적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서술하였는데, 이 噎膈은 太陽人의 內觸小腸病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李濟馬는 구체적으로 “음식물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에 방해받는 것이 있는 것을 噎이라고 하고, 안으로부터 받아들이는 데 막히는 것이 있는 것을 膈이라고 한다.”<sup>75)</sup>라고 하여 噎과 膈을 구분하였고, 주진형의 말을 인용하여 “상초의 噎膈은 음식물이 내려가면 胃脘이 心과 맞닿은 부분이 아프고, 잠시 후에 토하고 음식물이 나오면 아픔이 곧 그친다.”<sup>76)</sup>라고 하여 上焦噎膈의 증상에서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증이 일어나는 증상을 말하였다. 이어 張鷟의 말을 인용하여 “噎은 마땅히 神思간의 병이니 오직 안을 살펴서 스스로 길러야만 치료할 수 있다.”<sup>77)</sup>라고 하였다.

太陽人은 肺大肝小하여 외부 대상과의 유대 작용을 담당하는 肝의 기능이 약하다. 太陽人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 暴怒가 일어나게 되는데, 肝의 기운이 약한 상태라면 음식물의 소화 또한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거부하게 되며 이것이 곧 太陽人의 噎膈이다. 이렇듯 心에 의해서 소화기 증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므로 心과 胃의 관계에서 트림의 噫가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胃의 문제에 의해서 心의 정신증상이 일

75)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2. p.721. “食物自外入而有所妨碍曰噎, 自內受而有所拒格曰膈.”

76)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2. p.721. “上焦噎膈, 食下則胃脘當心而痛, 須與吐出, 食出, 痛乃止.”

77)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2. p.721. “噎, 當是神思間病, 惟內觀自養, 可以治之.”

어날 수 있다. 『素問逆調論』에서 “胃가 조화롭지 않으면 누워도 편안하지 않다.”<sup>78)</sup>라고 하여 胃의 문제로 인하여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였고, 『傷寒論』의 陽明病에서 神志증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心과 胃의 관계에서 한숨의 噫가 일어날 수 있다.

『內經』 噫가 트림으로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心과 胃가 연결됨을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足太陰脾經의 支脈이 胃를 거쳐 心中으로 들어가거나, 足陽明胃經의 經別이 心에 연결되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 밖에 心과 胃의 연결에 대하여 논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素問經脈別論』에서 “食氣가 胃로 들어오면 肝에서 精을 퍼뜨려 筋으로 氣를 보낸다. 食氣가 胃로 들어오면 濁氣가 心으로 몰려서 脈으로 精을 보내니, 脈氣가 經脈으로 흘러서 經氣가 肺에 몰린다.”<sup>79)</sup>라고 한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胃에서 心으로 가는 것은 水穀의 精微之氣인데, 트림은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제외한다면 胃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水穀之氣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므로 胃에서 心까지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트림이 心을 통해 나오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로 『素問宣明五氣』의 五氣所病 중 하나인 ‘心爲噫’를 완전히 설명하였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며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素問宣明五氣』 ‘五氣所病’의 본 의미는 ‘五臟의 氣가 문제를 일으켜서 생기는 병’이므로 ‘心爲噫’라고 표현한 것은 心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음으로 인해 噫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心爲噫’의 噫를 주석가들이 트림으로 해석하는 데 가장 직접적인 근거로 드는 것은 『素問脈解』의 ‘上走心爲噫’와 ‘陽明絡屬心’인데, 『素問脈解』의 ‘上走心爲噫’와 『素問宣明五氣』의 ‘心爲噫’를 ‘心爲噫’가 동일하다고 하여 噫를 모두 트림으로 해석한 것이다. 『素問脈解』의 太陰에서 ‘所謂’ 뒤에 나오는 증상들은 『靈樞經脈』의 足太陰脾經의 是動

病에 나오는 증상과 유사한데, 馬王堆帛書의 『陰陽十一脈灸經』에서 足泰陰之脈의 是動病은 “上<sup>80)</sup>走心, 使腹脹, 善噫, 食則欲嘔, 得後與氣則快然衰.”<sup>81)</sup>라고 나온다. 이것으로 본다면 氣가 逆하여 上走心하여 腹脹과 트림을 일으키는 것으로 여기서의 心은 五臟 중의 心이라고 보기보다는 흉부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한다면 『素問脈解』의 ‘上走心爲噫’와 『素問宣明五氣』의 ‘心爲噫’와 연관성도 떨어지게 된다.

이에 지금부터 心과 胃의 관계를 宗氣의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靈樞邪客』에서는 “宗氣는 胸中에 쌓여 있다가 喉嚨으로 나와 心脈을 관통하여 호흡을 행합니다.”<sup>82)</sup>라고 하여 宗氣가 胸中에서 喉嚨으로 나와 心脈을 관통하면서 호흡을 행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素問平人氣象論』에서는 “胃의 대락을 이음하여 허리라고 하니, 횡격막을 뚫고 肺에 이어져 왼쪽 젖가슴 아래로 나와 그 뛰는 것이 옷에 응하니 脈의 宗氣입니다.”<sup>83)</sup>라고 하였는데, 胃의 大絡인 虛里가 左乳下로 나와 심박동을 일으키는 것이 宗氣인 것이다. 즉 심박동과 호흡에 필수적인 宗氣의 작용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胃의 降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겨난 濁氣의 鬱滯가 心으로 연결되어 트림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宗氣와 心과 胃의 관계에서 心爲噫를 해석해본다면 胃와 연결되어 胸中에 쌓여 있는 宗氣가 心에서 鬱滯된 것을 풀기 위해 喉嚨을 통해 새어나가는 한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것은 실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며 허증에서도 胃의 기능이 약해 宗氣가 약해지면 심박동과 호흡의 작용이 약해짐으로 인해 한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80) 乙本에는 ‘上’이 ‘上當’이라고 되어 있다.(馬繼興 著.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47.)

81) 馬繼興 著.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p.247.

8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98. “宗氣積於胸中, 出於喉嚨, 以貫心脈, 而行呼吸焉.”

8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65. “胃之大絡, 名曰虛里, 貫膈絡肺, 出於左乳下, 其動應衣, 脈宗氣也.”

7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7. “胃不和, 則臥不安.”

7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6. “食氣入胃, 散精於肝, 淫氣於筋. 食氣入胃, 濁氣歸心, 淫精於脈, 脈氣流經, 經氣歸於肺.”

### 3. 噫와 太息과의 관계

『內經』에서 噫를 한숨 혹은 탄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內經』에서 한숨을 의미하는 또다른 용어로 太息이 나타난다. 『靈樞·口問』에서 이에 대한 언급을 볼 수 있다.

근심하고 생각이 많으면 심계가 급해지고 심계가 급하면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면 (호흡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한숨을 쉬어 (기를) 펼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수소음경과 수결음경, 족소양경을 보하고 유침시킵니다<sup>84)</sup>.

한숨이 나오는 기전은 근심과 생각으로 인하여 心系가 급해지고, 思則氣結하여 氣의 흐름의 막히게 되는데, 手少陰經, 手厥陰經, 足少陽經 등을 補한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한숨과 心의 관계를 역시 확인할 수 있다.

한숨은 心 이외에 足少陽 즉 膽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心과 膽은 經別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이외에 相通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內經』내에서 각각 '君主之官', '凡十一臟取決'의 장부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善太息'은 『靈樞·經脈』에서 足少陽膽經의 是動病으로 제시되었고<sup>85)</sup>, 『靈樞·邪氣藏府病形』<sup>86)</sup>, 『靈樞·脈論』<sup>87)</sup>등에서도 膽과 관련된 병으로 언급되었다.

## IV. 결론

『黃帝內經』의 噫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黃帝內經』의 噫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총 20회의 용례 중 噫를 트림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4회, 트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4회, 의미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총 2회 나온다.
2. 『內經』저작 당시의 의서에서 噫는 『內經』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트림의 의미로 쓰였으며 의서 이외의 기타 서적에서는 일부 트림의 의미로 쓰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 한숨, 탄식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 '噎' 字의 등장 시기는 宋代로 추정된다. 이후 의서에서는 트림에 대하여 噎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明清代의 많은 의서에서는 噎의 용례를 다수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噎가 쓰인 이후에도 噫와 의미가 분리되지 않고 혼용되었다.
4. 『內經』의 내용이 만들어진 시기는 噫의 의미가 한숨, 탄식으로 주로 쓰이다가 트림의 의미가 나타나는 과도기라고 추정된다.
5. 宗氣와 心과 胃의 관계에서 心爲噫를 해석해본다면 실증에서는 胸中에 쌓여 있는 宗氣가 心에서 鬱滯된 것을 풀기 위해 喉嚨을 통해 새어나가는 한숨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허중에서도 胃의 기능이 약해 宗氣가 약해지면 심박동과 호흡의 작용이 약해짐으로 인해 한숨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6. 『內經』에서 한숨을 의미하는 太息은 心 이외에 膽의 문제로도 인식되었다.

위 연구를 통해 1차적으로 『黃帝內經』의 각 편에서 사용된 噫의 의미를 분명하게 번역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나아가 원전의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임상에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데, 연구 과정에서 트림 혹은 한숨으로 쓰인 噫의 의미 파악을 위해 전후의 문맥을 통해 기전을 고려해서 분석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임상에서 한숨, 트림 등의 증상을 접할 때 心과의 연관성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 이러한 증상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8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59. “憂思則心系急, 心系急則氣道約, 約則不利, 故太息以伸之, 補手少陰心主, 足少陽留之也.”

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2. “膽足少陽之脈, ……是動則病口苦, 善太息, 心脇痛, 不能轉側, 甚則面微有塵, 體無膏澤, 足外反熱, 是爲陽厥.”

8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40. “膽病者, 善太息, 口苦, 嘔宿汁, 心下澹澹, 恐人將捕之, 噓中呻吟然, 數唾. 在足少陽之本末, 亦視其脈之陷下者, 灸之, 其寒熱者, 取陽陵泉.”

8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8. “膽脹者, 脇下痛脹, 口中苦, 善太息.”

## References

1. 書傳集註. 서울. 태산문화사. 1984.
2. 禮記. 서울. 보경문화사. 1991.
3. 淸·柯琴 編撰,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4. 淸·高士宗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1.
5. 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語譯.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6.
6. 김달호, 이종형 共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素問(上)(下). 서울. 의성당. 2001.
7. 김달호 編譯. 注解補注 黃帝內經靈樞(全). 서울. 의성당. 2002.
8. 日本·丹波元簡 等編. 聿修堂醫書選 素問識.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9. 馬繼興 著.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10. 明·馬蒔 撰, 田代華 主校. 黃帝內經素問注證發微.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1. 박찬국.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注釋. 서울. 집문당. 2005.
12. 박찬국. 懸吐國譯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注釋. 서울. 집문당. 2009.
13.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서울. 역락. 2012.
14. 史廣江 責任編輯. 康熙字典.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2006.
15. 漢·司馬遷 撰. 史記 第八冊 傳(二). 北京. 中華書局. 1982.
16. 上海書店 編. 二十五史 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17. 孫治熙 主編. 黃元御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8. 송일병 외. 改訂增補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2012.
19. 松亭 金赫濟 校閱. 原本 小學集註(上). 서울. 明文堂 1985.
20. 松亭 金赫濟 校閱. 原本集註 詩傳(全). 서울. 明文堂. 1991.
21. 松亭 金赫濟 校閱. 懸吐釋字具解 論語集註. 서울. 明文堂 2000.
22. 안동립 역주. 莊子. 서울. 현암사. 2005.
23. 淸·吳謙 等編.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標點·索引 御纂醫宗金鑑. 서울. 법인문화사. 2006.
24. 明·吳昆 著, 孫國中 方向紅 點校. 黃帝內經素問吳注. 北京. 學苑出版社. 2001.
25. 王琦 외 4人. 黃帝內經素問今釋. 서울. 성보사. 1983.
26. 王象禮 主編. 陳無擇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5.
27. 윤창열,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7.
28. 李家源·安炳周 監修, 大漢韓辭典編纂室 編. 教學 大漢韓辭典. 서울. 教學社. 1998.
29. 李順保 編著. 傷寒論版本大全. 北京. 學苑出版社. 2006.
30.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31. 淸·章楠虛谷編注, 方春陽 孫芝齋 點校. 靈素節注類編. 杭州.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86.
32. 張登本 主編. 白話通解黃帝內經.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2000.
33. 張登本 孫理軍 主編. 王冰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34. 河北醫學院校釋. 靈樞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35. 許惟賢 整理. 說文解字注(上). 南京. 鳳凰出版社. 2009.
36. 허준 지음. 윤석희·김형준 외 옮김. 對譯 東醫寶鑑. 동의보감출판사. 2006.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9. 蘭鳳利. 論《黃帝內經》對《說文解字》的影響. 中華醫史雜誌. 2006. 10(4). pp.201-205.
40. 王官惠. 《內經》“噫”字辨析. 湖北中醫雜誌.

1985. 3. pp.40-41.

41. 채영진. 素問至眞要大論에 對한 研究.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42. 文淵閣 四庫全書 電子版(網上版). 迪志文化出版有限公司. 2007.